

이주가족복지회, 외환다문화대상 행복도움상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이사장 이상욱·왼쪽)가 지난 8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7회 외환다문화대상 단체부문에서 행복도움상을 수상했다. 이주가족복지회는 지난 2005년 설립돼 이주여성들의 복지향상에 힘써 왔다. <사단법인 이주가족복지회 제공>

전남대병원, 서부지역 협력병원 간담회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림)은 최근 KTX 호남선 개통 등 급변하는 국내 의료환경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전남 서부지역 협력병원 간담회를 가졌다. <전남대병원 제공>

조선대병원-밝은안과 21 진료협약



조선대병원과 밝은안과21병원은 최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상호 원활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밝은안과21병원 제공>

광산업진흥회, 김형국 전 세네갈대사 고문 위촉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9일 국내 광산업계의 해외진출 및 신규 시장 발굴 등을 위해 김형국(63·사진) 전 세네갈 대사를 '해외 프로젝트 추진 고문'으로 위촉했다. 김 고문은 지난 1980년 외무부에 입부해 모로코와 알제리, 프랑스, 터키 등 해외공관에서 외교관 활동을 해왔으며 2009년엔 주세네갈 대사관으로 활동했다. 김 고문은 앞으로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세네갈 광통신·LED 제품 보급 사업과 향후 해외프로젝트 개발 및 현지 활동 지원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가르치는 멘토 아닌 함께 배우는 언니 될래요”

언론진흥재단 읽기 봉사단 멘토링 참여 조선훈대 김다혜씨

“가르치는 멘토가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함께 배우는 언니가 되고 싶어요. 다독다독 멘토링 주제인 ‘즐거운 읽기, 꿈을 그리는 멘토링’처럼 이걸 통해 저와 동생들 모두가 꿈을 이루면 좋겠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대학생 읽기봉사단 ‘다독다독 멘토링’에 멘토로 참여하는 김다혜(20)씨는 지난 8일 멘토와 첫 만남을 무사히 마쳤다. ‘멘티들은 어떤 학생일까?’, ‘처음 만난 동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던 그는 최근 멘토 워크숍에 다녀온 후 자신감을 얻었다. 지난 3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워크숍은 멘티까지 모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영향으로 대학생 멘토들만 참여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멘토링을 좋아하는 대학생들은 쉽게 친해졌다. 조선훈대학교 교육학과 3학년으로 교사를 준비하는 김 씨 역시 소중한 체험을 얻었다. “교사가 되고 싶어 그동안 여러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번 행사는 일

동생들과 지식·삶의 경험 공유

원하는 꿈 이루도록 챙겨줄 것

방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배운다는 점이 특별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읽기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다독다독 멘토링’ 사업을 펼치고 있다. 멘티는 비슷한 또래 멘토에게 지식과 삶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멘토 역시 생활 속에서 읽기를 실천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멘토와 멘티가 만나는 풍경도 달라졌다.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은 물론 전화나 SNS를 활용한 멘토링도 인기다. 방법은 간단하다. 책에서 읽은 좋은 구절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 일기 쓰고 인증사진 올리기, 신문에 소개된 새로운 직업 찾아보기까지. 참가자들은 즐겁게 활동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덕분에 지난 2013년 대학생 멘토 40명, 중고등학생 멘티 80명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은 지난해 멘토 80

명, 멘티 160명을 넘겼고, 올해는 멘토 100명, 멘티 200명으로 늘었다. 광주에서는 김 씨를 포함한 네 명이 참가했고, 전남에서는 아홉 명이 멘토로 참여했다. 인원이 늘어난 것과 함께 참가자들의 독서량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진흥재단은 ‘다독다독 멘토링’ 사업 후 멘토와 멘티 모두가 읽기 시간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단이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하루 평균 독서시간은 47분에서 87분까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멘토로 만난 전남중학교 1학년 오혜원, 양유나 양에게 읽기를 도와주는 멘토를 넘어 좋은 언니가 되고 싶다는 김 씨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11월까지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혜원이는 저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배운 걸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아직 목표를 정하지 못한 유나에게는 여러 경험을 같이하며 원하는 꿈을 찾아주고 싶어요. 동생들을 잘 챙겨주다 보면 저도 한결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전남대 박의경 교수 저서 ‘여성의 정치사상’ 출판문화진흥원 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박의경(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저서 ‘여성의 정치사상 : 울스틴크래프트와 맥(책세상)’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5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여성의 정치사상’은 여성 정치사상의 근대적 토대를 마련한 18세기 작가 메리 울스틴크래프트,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실천한 19세기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을 중심으로 여성 정치사상의 역사와 발전가능성을 살펴본 책이다. 저자는 근대 여성정치사상의 선구자로 꼽히는 두 사상가의 업적을 토대로 미래적 자유주의를 구상하며 탈젠더화된 정치사상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통해 열린사회를 향한 미래 전략을 모색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박의경 교수는 “여성의 문제를 정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정치적인 것에 대한 성찰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정치사상’의 차원에서 다룰 때 불완전한 근대의 공백이 메워진다”고 이야기한다. 박 교수는 서양근대정치사상과 여성정치, 여성정치사상의 정립과 민주주의의 사상적 완성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활발히 펴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저로 ‘서양근대중세 정치사상사’ ‘좋은 삶의 정치사상’, 번역서로 ‘정치사상과 여성’ 등을 발간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산단공, 광주 전자공고생 대상 ‘취업탐색 행복기업 탐방’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부장 윤철)는 9일 광주 전자공업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취업탐색 행복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광주 전자공고 전기과 3학년 40여명과 교사 2명은 첨단 2단지 산업단지에 위치한 현대이엔티를 방문해 공장 투어를 진행했으며 투어 후 기업의 필요 인재를 현장에서 뽑을 수 있도록 채용연계로 이어지는 현장면접도 시행했다. 윤철 산단공 광주전남본부장은 “우수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채용경로를 확보하고 기업 홍보기회도 계속 가



져나갔겠다”며 “긍정적 취업인식 확산으로 우수인력을 유인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

불교모금단체 ‘빛고을나눔나무’ 네팔지진 피해 9200만원 전달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 상임이사 혜공)가 최근 네팔 지진 피해 지역에 성금 92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 모금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동안 광주 지역 사찰, 불교단체, 광주전남불교NGO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빛고을나눔나무 이사장 연광스님(증심사주지)은 “지진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네팔 국민들을 위해 광주지역 많은 불자들이 정성을 모아주셨다”며 “작은 힘이나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한 소중한 복건(福田)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축

▲강대철·박현숙씨 장남 새한별군 김선우·유인숙씨 장녀 현희양=11일(토) 오후 2시 서울 법원종합청사예식장 2층 예식홀. ▲김대성·정금숙씨 장남 승훈군 광광식·이혜숙씨 차녀 미경양=12일(일) 낮 12시 30분 광주 아름다운웨딩홀 1층 티파니홀.

동창회

▲조대부중 32회(회장 박기수) 하계 정기모임=10일(금) 저녁 7시 남구 서동 민들여촌 062-675-1750.

종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이화회(회장 이승암)월례회의=14일(화) 오후 6시 30분 도지원 회의실 3층.

알림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남구중동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

자, 조손가족,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로 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판정 1~2 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모집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험·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

사센터 062-613-5584. ▲심청재가 장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지매·중증·노환), 정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회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둠 수업): 주 1~2회, 회당 40분. 초등학교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성인미술강좌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강좌 수요일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강좌 목요일 오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362-2072.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요가 월~목 문의 062-

951-9461.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지체, 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가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부음

▲신신식씨 별세 경훈(삼성 SDI)·은영·지영·지선씨 부친상=발인 11일(토) 조선훈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sageok) for a deceased person. It lists the name of the deceased, the date and time of the service, and the location.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funeral home.